

# “문화예술표준계약서 그게 뭔가요?”

### 공연예술분야 표준근로계약서 2019~21년 제정 예술인 피해 구제 지역 예술인 초년생들 존재도 몰라 홍보·교육방법 등 다변화 필요



올해 초 광주문화재단 지원으로 상연했던 공연의 한 장면.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광주에서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피아니스트 최(여·27) 씨는 작년 5월 모 오케스트라와 정기연주회 겸 신인음악회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잔금 및 납기, 영상제공 등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9쪽에 걸쳐 연습일, 구체적 역할(지휘, 협연 등)까지 규정하고 출연료 지급 방식(월급, 일급 등), 실연자와 제작자의 구체적 의무까지 규정하는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비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했다. 최 씨는 오는 30일 다른 계약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표준계약서의 존재조차 몰랐다.

#전국 규모의 출판사에서 시인인 출간을 앞두고 있는 광주 출신 시인 김(30)씨는 출판계약서를 작성하며 다소 이상함을 느꼈다. 김 씨는 일찍이 ‘문학분야 표준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상 받아본 출판사의 ‘출판권설정계약서’는 구체성도, 권익보호 내용도 결여되어 있었다. 계약서에는 출판권 설정 및 배타적이용권, 선금금 등 기본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정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판권과일의 구매 및 양도권, 성희롱 등 피해구제와 특약 등이 부재했다.

문체부는 작년 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등과 함께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미술)를 제정했다. 공연예술분야도 표준근로계약서·표준용역계약서 및 해설서를 지난 2019년 배포했으며, 출판 분야는 출판권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등 10종의 표준계약서를

지난 2021년 제정했다. 이외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저작재산권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 1항에서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한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은 없지만 계약을 진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정형화된 내용을 미리 정해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실제 광주·전남지역 예술현장에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유통·정착되기까지는 갈 길이 요원해 보인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며 계약 경험이 드문 ‘예술인 초년생’들은 표준계약서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홍보와 교육 방법 등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일부 의무명기사항이 아닌 이상 현재로서는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모두’ 포함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적 분쟁상황이 발생할

시 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들이 예술인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돼 ‘유비무환’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의무명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이후 후속 조치로 문제부가 조사에 나서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예술계약 ‘서면계약 위반 신고접수 사건’은 총 100건이며, 그중 광주·전라지역 신고 건수는 전국 대비 1%(총 1건)에 불과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김수진은 “절대적인 신고 건수 등이 적어 보일 수도 있으나,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문화재단 등과 협력해 통해 지금보다 많은 지역예술인들이 서면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



### 박진연의 문화카페

10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이하 현대미술관) 덕수공관에서 고 오지호(1905~1982)화백의 ‘남향집’을 마주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파스텔한 햇살과 대추나무의 푸른 그림자가 인상적인 그림은 오 화백이 유독 아꼈던 작품으로 유명하다. “남향집”은 나의 작품 활동에 문을 열었던 그림”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그의 말대로 맑은 공기와 투명한 빛이 쏟아지는 화폭에선 남도의 정서가 묻어난다. 그래서 서인지 ‘남향집’은 미술사적 가치가 인정돼 2013년 국가등록문화재 제536호로 등재됐다. 당시 현대미술관이 주최한 ‘명화를 만나다-근현대화 100선’에는 ‘남향집’(1939년 작) 이외에 ‘처의 상’(1936년작), ‘설경’

등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이 때 현대미술관은 유족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상설전시관 건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술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8년이 흐른 지금도 그의 작품들은 상설전시장이 아닌, 수장고에 박혀 햇빛을 보지 못하는 날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지역에선 10여 년 전부터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오 화백의 작품들을 영구임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전시장이 없다면 모를까 변듯한 광주시립미술관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타향살이’를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다. 절차상 영구임대가 어렵다면 현대미술관 관주관을 유치해서라도 상설 기획전을 통해 거장의 작

### 광주는 ‘남향집’을 보고 싶다

(1971년작) 등 오 화백의 대표작들이 대거 선보였다.

지난 1936년 세상에 나온 ‘처의 상’은 부인 지양진 여사가 모델이다. 흰색 저고리와 빨간 웃옷, 옥색치마의 색상을 대비시켜 한국적 인상주의를 보여준 수작으로, 그에게는 그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의 길을 선택한 그를 광주 지산동 초가에서 그림자처럼 내조한 부인에게 전하는 연서(戀書)였기 때문이다.

현대미술관은 국립미술관급 ‘남향집’을 비롯한 오 화백의 작품 37점을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작품이 고향을 떠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오 화백이 별세한 후 지난 1985년 유족들이 이들 작품을 전남도에 기증하려 했지만 당시 변변한 미술관이 없어 부득이 현대미술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생전 “작품 한점을 팔면 먼 객지에 딸을 시집 보낸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던 그였지만, 영구보존할 전시장을 구하지 못해 ‘꽃기듯’ 광

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대답없는 메아리로 끝났다.

최근 광주 문화계의 최대 숙원인 현대미술관 관주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요구한 ‘현대미술관 관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달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다면 800억 원을 들여 2027년 옛 신암파크호텔 자리에 세계적 수준의 현대미술관 관주관이 들어서게 된다.

현대미술관 관주관은 소장품에 대한 호남권 수장고는 물론 미디어아트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미술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현대미술관의 퀄리티 높은 컬렉션을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무적이다. ‘남향집’의 온기를 광주에서 느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 전통예술공연 보며 ‘계묘년과 이별’

시립창극단, 8일 광주예술의전당

끝을 향해가는 계묘년. 전통 예술 공연으로 풍성했던 한 해를 돌이켜보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을 환대하는 의미를 담은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규형)이 제60회 정기공연 ‘한 해를 보내며...’를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한국 전통 선율을 담은 ‘산조’와 ‘살풀이’, ‘남도 민요’를 감상할 수 있다. 꽃을 들고 춤추는 ‘화현과 바라’, ‘판굿’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2부는 창극단 예술감독 김규형과 1세대 재즈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특히 1세대 재즈 보컬에 최용민, 트럼페티스트 최선배, 피아니스트 신관용 등이 출연할 예정이며, 전성식(베이스), 임현수(드럼), 이정식(색소폰)도 볼 수 있다.

재즈 곡은 ‘성자가 행진할 때’, ‘이 멋진 세상에서’, ‘모베르 블루스’를 비롯해 ‘오래된 친구’, ‘크리스마스 송’ 등이 울려 퍼진다. 이어 국악 가요로



2022년 수시공연 ‘송년 국악한마당’을 진행하는 모습.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홀로 아리랑’, ‘오돌또기’도 들을 수 있다.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쓰는 대목’은 모두

북 연주와 어우러질 예정이다. 전석 1만 원. 티켓 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생각이 생각을 부르는 ‘독서여행’

양관수 작가 ‘채식주의자랑...’ 펴내

“좋은 소설과 다양한 책들을 즐겨 읽는 필자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다. 시간을 쪼개 보자면 20여 년에 이른다. 학생이나 일반인을 모아 신문 쓰기를 이끌어갔다.”

양관수 소설가의 말이다. 양 작가는 순천대 문예창작학과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순천대 평생교육원 산문 창작반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오랫동안 글쓰기와 독서를 매개로 예비 작가들과 문화애호가들을 만나왔다.

이번에 양 작가가 ‘채식주의자랑 떠나는 양관수

의 독서여행 외설인가 예술인가(계간문예)를 펴냈다. ‘양관수의 독서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한강의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를 토대로 한 독서 관련 수업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는 한국 소설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저자는 “어떤 책을 읽든 그것은 독자의 몫이다”며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덧붙여 생각에 생각이 비약하는 다양한 독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동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